

끊어진 길 끝서 시작되는 '길'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⑤ 경북 문경시 묘적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등산로 없음, 참배객은 조용히" 암자 입구에 걸린 안내문이다. 더 이상 길은 없다. 길은 끊어지고, 그 길 끝엔 깊은 고요뿐이다. 그리고 그 적적함과 적적함 속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길 없는 길'이다. 어디를 보아도 길은 없고, 어디를 보든 그것이 길이다. 닿고자 하는 만큼 길은 보이고, 보고자 하는 만큼 길은 다가온다. 다른 길을 찾아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깊은 적요가 내어주는, 길 아닌 길을 나서볼 것인가. 적적함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보이는 길. 그 길의 이름은 묘적암(妙寂庵)이다.

불산(佛山)에 깃들다

경상북도 문경시 사불산(四佛山). 공덕산(功德山)이라고도 한다. 587년(진평왕 9) 죽령 동쪽 산꼭대기, 사방에 여래상이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하늘에 떨어진다. 사면석불상이다. 이때부터 사불산으로 불렀다. 물론 전설이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생각이라는 것 역시 먼 훗날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이다. 하늘에서 불상을 새긴 바위가 떨어졌다. 어느 시절의 생각이 그 시비(是非)를 끊을 수 있을까.

임금이 사면석불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찾아 예배한 후 서쪽에 가람을 연다. 대승사다. 묘적암은 대승사 산내 암자 중 하나다. 대승사에서 약 1km정도 거리에 있다. 대승사에서도 묘적암에서도 사면석불상이 보인다. 불상이 따로 필요 없다. 역사에서 바라보면 대승사와 묘적암의 주불은 산꼭대기의 사면석불상이다. 산꼭대기에 부처님을 모신 사불산은 그야말로 산 자체가 도량인 셈이다. 어느 곳이든 마음 내려놓는 곳이 법당이다. 묘적암도 그 중의 한 자리다.

소리 없는 자리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안내문을 지나면 그때부터 산문이다. 작은 철제 바리게이트에 걸린 몇 자의 글이 세상을 둘로 나눈다. 산문의 안과 밖.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안내문이 아니라면 산문은 어디서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글 몇 자에 마음은 둘이 된다. 마음이라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안내문에서 도량이 가까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도량의 그림자는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걸까. 걸음은 막연하다. 볼 수 없다는 것은 막연한 일이다. 막연한 걸음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20M 정도의 언덕길을 오르고 나면 홀연히 암자가 나타난다. 원목의 무늬를 드러낸 목조의 집 한 채, 세월보다 더 세월처럼 보이는 집 한 채가 소리 없는 편액과 함께 서있다. 최소한의 담장과 최소한의 마당 그리고 최소한의 문과 창호. 묘적암이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2〉

B4 책세상
월호 스님의 〈선가귀감 강설〉

B5 문화
영화 '나랏말싸미' 7월 24일 개봉

B6 학술
국보 지광국사탑 110년만에 귀향